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돌파구 찾나

광주시·함평군·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논의  
 “광주공장 현 상황 공유·3자 간 상호 협력 논의”

광주시와 함평군·금호타이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 모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상의 함평군수, 금호타이어 사장, 광주시·함평군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만나 차담회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차담회에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현 상황, 향후 이전 준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양 단체장은 광주와 함평 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호 협의의 속 함께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

로 알려졌다.

올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인수 및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사업을 포기하고 컨소시엄을 해체했다.

지난해 12월 본계약 협상이 최종 무산된 이후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공장부지 인수·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속 컨소시엄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말 미래에셋·현대건설·중흥토건으로 구성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후 1조4000억 원의 부지매각대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견이 계속되면서 본계약 체결은 계속 미뤄져 왔으며, 결국 지난해 말 본계약 체결이 최종 무산됐다.

미래에셋컨소시엄 측은 본계약 최종 무산 이후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두 달여 만에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컨소시엄을 해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은 없다. 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금호타이어를 주제로 한 상

호 협력 속 이전 문제를 논의해 나가자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연간 1600만본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타이어 생산거점이지만 1974년에 지어져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광주공장을 이전키로 하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장 이전 부지 계약금을 납부했다.

권현안 기자

韓 성장률 또 낮춘 OECD  
 1.6%→1.5%로 하향  
 세계 전망치는 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반도체 부진과 무역적자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 한국은행(1.4%) 등 국내 기관들도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올해 1% 중반대 성장률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OECD는 7일(현지시간)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발표보다 0.1%포인트(p) 낮은 1.5%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인 2.3%에서 0.2%p 낮은 2.1%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한국의 민간소비는 회복세이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투자가 다소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런 한국의 고금리 흐름과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에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올해 3.4%, 내년 2.6%로 예측했는데,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의 조정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속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은행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이 심화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2.6%)보다 0.1% 상향조정된 2.7%로 내다봤다. 에너지가격이 하락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중국 리오프닝과 기업·소비심리 반등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히 개선될 것이란 분석한 결과다.

광주 조직개편 등 조례안 제출	2면
한국, 안보리 재진입	3면
국산차 역차별 없앤다	4면

##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결의...사회적 대화 중단

경찰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강제 진압 사건으로 격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국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7년5개월 만에 전면 중단한다.

다만 탈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해, 향후 집행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전남 광양지역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금속노련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결과,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장시간 논의했는데,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며 “경사노위 참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완전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탈퇴 여부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1시간 1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를 탈퇴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에는 규탄하지만 경사노위 탈퇴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두고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건이 장기화하자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제 연행했고, 김 사무처장 역시 머리에 부상을 당한 채 이틀날 체포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격분하며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중앙집행위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책은 결국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비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이제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고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집행위 말미에도 “냉철해야 하기보다 분노할

때지만, 우리 조직이 같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하되, 위원장이 결의하면 탈퇴도 가능하다”고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도 열어놨다.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

‘금속노련’ 사태로尹정권 심판 의견 강화  
 “탈퇴해야” vs “대화창구 열어놔야” 분분

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에서는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돼왔

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계가 사실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어렵게 첫 노사정 간담회가 성사됐지만 금속노련 사태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결렬됐다.

김도기 기자



‘망루농성 진압 반발’ 한국노총 대정부 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7일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시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010-6265-0057

##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